



부안지회 '배움의 장' 마련

- 양육관련 전문 교육 실시, 전화원 농가 무료 기생충 검사 계획도 -

본회 부안지회는 구립 26일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사슴사육 농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강사를 초빙, 사슴사육 기술과 질병관리 요령, 양육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본회 부안지회장(이성현·변산사슴목장 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양육사업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과 금번 교육을 통해 많은 지식을 쌓아 현실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강사로 초빙된 본회 배소식 부회장은 “양육사업이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지식의 함양과 부단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양육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사로 초빙된 유일준(유일동물병원장) 수의사는 사슴의 질병관리 요령에 대해 실증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실시,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부안지회는 올초 전 회원농가를 상대로 기생충 검사를 무료로 실시, 이상이 발견된 사슴에게는 역시 무료로 기생충약을 공급하고 검사 필증을 발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안지회 심태선사무장은 “축기연에 의뢰, 기생충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필증을 발부하여 소비자들에게 녹용, 녹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회원농가에 한해 무료로 실시, 회원 실익을 강화하여 비회원의 회원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필요한 자금은 부안군청에서 지원키로 약속했다며 “지역 사슴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준 부안군청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부안지회는 기생충 검사 외에도 절각시즌에 앞서 절각 및 마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혈제를 무료로 공급할 계획을 갖는 등 금년도 사업계획을 회원농가 실익제공 및 비회원의 회원화에 맞추고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한도원 기자**

